

반자본주의자들의 거짓말은 태생적인 것인가

수천만 아사자를 만들어낸 공산주의 역사에도
자본주의가 기아·가난의 책임 있다고 거짓 선동

오정근 [필진페이지 +](#)

입력 2023-05-22 09:11:51



▲ 오정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자유시장연구원장

독일의 역사학자 라이너 지텔만 (Rainer Zitelmann)이 ‘반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큰 오류’라는 책을 2022년 독일에서 독일어와 영어로 출간했다. 이 책이 한국에서는 ‘반자본주의자들의 10가지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금년 5월에 번역·출간되었다. 지텔만이 2018년에 출간한 ‘자본주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독일어 책은 한국에서 ‘부유한 자본주의의 가난한 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2019년에 번역·출간돼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그는 이 두 책에서 일관되게 자본주의를 공격하는 반자본주의자들의 주장은 철저히 오류와 거짓말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잘못된 것임을 역사학자답게 역사적 사실을 들어 확실하게 논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1949년 공산당 정권이 들어선 후 마오쩌둥(毛澤東)의 주도하에 1958년부터 1960년 초 사이에 추진되었던 ‘대약진운동’을 지적하고 있다. 공산주의 국가의 핵심은 사유재산을 폐지하고 생산수단을 공유하는 것이다. 당시 중국에서는 모든 사유재산을 몰수하고 심지어 사유가옥은 철거되고 소련의 소비에트와 유사한 집단농장인 인민공사를 2만4000개 설치해 평균 8000명, 많게는 최대 2만 여명을 수용해 집단으로 일을 하도록 했다. 그리고 공산주의 이상사회로 가는 길을 단축한다는 명분으로 ‘대약진운동’을 실시했다. 그러나 보고되는 생산량은 증가하는데도 실제 생산량은 줄어들어 대기근이 확산되어 4500여만 명이 아사하는 참상이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참담한 결과에 몇 년 쉬었다 다시 시작한 것이 1966~76년 중 실시되었던 문화대혁명이다. 대약진운동의 실패를 유산계급과 유식계급 탓으로 분석해 수많은 지식인과 유산자가 농촌으로 가는 하방을 당했다. 역시 수많은 희생자를 낸 후 마침내 1976년 마오쩌둥이 사망하면서 광기의 공산주의 혁명은 중단됐다. 그 후鄧小平(鄧小平)이 등장해 개혁개방으로 오늘날 주요 2개국(G2)의 중국을 건설했다.

로 편입되고,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도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고 1991년에 붕괴되었다. 북한도 고난의 행군 기간 동안에만 수 백만이 아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공산주의가 국민을 형언할 수 없는 참담한 질곡으로 몰고 가고 마침내 국가마저 붕괴시키고 있는데도 지텔만이 28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아직도 응답자의 56%가 자본주의는 이익보다 해를 더 많이 끼치는 것으로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텔만은 이 대부분이 좌파 공산주의자들의 거짓선동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공산주의자들은 선동을 중시해서 마오쩌둥은 국공내전 중에도 선동선전물을 인쇄할 인쇄기를 들고 다녔다고 한다.

지텔만이 지적하는 반자본주의자들의 10가지 거짓말은 ‘자본주의는 기아와 가난에 책임이 있다/ 불평등을 확대한다/ 환경을 파괴한다/ 경제위기를 반복한다/ 비민주적이다/ 독점을 조장한다/ 이기심과 탐욕을 부추긴다/ 불필요한 소비를 조장한다/ 전쟁을 일으킨다/ 언제나 파시즘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 등이다.

이 주장의 대부분이 역사적인 분석을 토대로 볼 때 오류이고 거짓말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류가 유사 이래 수천 년 동안 하루 1달러도 안 되는 적은 소득으로 시달려온 기아와 가난은 산업혁명 후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1820년경부터 소득이 급등하면서 해소되기 시작했다는 지적이다. 이는 ‘트루 리버럴리즘’의 저자 디드러 매클로스키 (Deirdre Nansen MacCloskey)의 ‘대풍요(great enrichment)’와 상통하는 주장이다. 통계적으로 보면 불평등도 자본주의 국가 보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더욱 심하고 환경파괴도 공산주의 국가에서 더욱 심하다는 것이다. 독점과 이기심은 습페터의 주장처럼 경제혁신의 원동력이 되어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오히려 공산주의 국가가 전체주의 독재국가라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한국도 1962년 경제개발 전에 1인당 소득이 100달러(하루 0.3 달러)도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3만 달러를 넘어 G7을 넘보고 있는 데도 아직도 좌파의 거짓선동이 활개치고 그러한 거짓선동을 지지하는 팬덤들이 넘쳐나고 있으니 유구무언인 실정이다. 특히 SNS 인공지능(AI)의 발달로 거짓선동이 더욱 날개를 단 듯 범람하며 활개를 치고 있으니 거짓을 밝혀내고 진실을 확산시키는 일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